

## 《대한침구의학회지》에 30년간 게재된 논문에 대한 관찰

장수희<sup>1</sup>, 오득주<sup>2</sup>, 박정하<sup>3</sup>, 윤명환<sup>4</sup>, 최익선<sup>1,\*</sup>

<sup>1</sup>나사렛한방병원 침구의학과

<sup>2</sup>나사렛한방병원 한방내과

<sup>3</sup>나사렛한방병원 한방재활의학과

<sup>4</sup>동신대학교 한의과대학 한의학과



### [Abstract]

Analysis of Papers Published in Thirty Years of the Journal History of  
*The Journal of Korean Acupuncture and Moxibustion Medicine*

Su Hee Jang<sup>1</sup>, Deuk Ju Oh<sup>2</sup>, Jung Ha Park<sup>3</sup>, Myoung Hwan Yoon<sup>4</sup> and  
 Ick Seon Choe<sup>1,\*</sup>

<sup>1</sup>Department of Acupuncture & Moxibustion Medicine, Nasaret Korean Medicine Hospital

<sup>2</sup>Department of Korean Internal Medicine, Nasaret Korean Medicine Hospital

<sup>3</sup>Department of Korean Rehabilitation Medicine, Nasaret Korean Medicine Hospital

<sup>4</sup>School of Korean Medicine, College of Korean Medicine, Dongshin University

Objectives : Type analysis and comparison among three decades are done on papers published in *The Journal of Korean Acupuncture and Moxibustion* from the inaugural issue to the last issue of 2013, Vol 30(5).

Methods : Journal search engine at 'theacupuncture' and 'kamms' were used. Issues not searched in these two search engines were not included in the analysis.

Results : The number of journals in the thirty years of the journal history included 2081 articles. For type analysis of the articles, experiment articles outnumbered other types with 743 papers followed by 564 review articles, 601 clinical articles, and 156 case articles. In comparison among three decades, recent ten years outnumbered the other types with 1060 papers followed by 853 papers in the middle decade and 168 papers at the initial decade.

Conclusion : In the thirty years of the journal history, the research has become more actively done in the recent decade.

#### Key words :

*Journal of Korean  
 Acupuncture and  
 Moxibustion*;  
 Acupuncture;  
 Moxibustion

Received : 2014. 01. 22.  
 Revised : 2014. 02. 25.  
 Accepted : 2014. 03. 04.  
 On-line : 2014. 03. 20.

\* Corresponding author : Department of Acupuncture & Moxibustion Medicine, Nasaret Korean Medicine Hospital, 21, Seokchon-ro, Namdong-gu, Incheon, 405-803, Republic of Korea  
 Tel : 82-32-435-5111 E-mail : dandychoe@hanmail.net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The Acupuncture* is the Journal of Korean Acupuncture & Moxibustion Medicine Society. (<http://www.TheAcupuncture.or.kr>)

Copyright © 2014 KAMMS. Korean Acupuncture & Moxibustion Medicine Society. All rights reserved.

## I. 서 론

논문이란 연구자가 어떠한 주제에 대해 자신의 학문적 연구결과나 의견, 주장을 일관성 있고 일정한 형식에 맞추어 논리적·체계적으로 증명하여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과정을 글로 기록한 것이다<sup>1)</sup>. 논문의 종류는 다양한데 《대한침구의학회지》에 게재되는 논문의 종류는 원저, 논설, 종설, 임상, 증례, 임상이미지, 논평, 평생교육 기고, 편집자에게 쓰는 편지로 총 7개로 분류되어 있고 분과 유형에 따라 25개로 계통적 분류된다<sup>2)</sup>.

대한침구의학회는 1973년 8월 8일 창립된 학회로 대한한의학회에 소속된 36학회 중 하나이며 침구의학회 및 침구학서적의 발간 및 수집이 학회의 주된 사업 중 하나로서 1984년 5월 학회지 제1호가 발간된 이래 현재 2013년 30호 5권까지 발간되었으며 소속된 회원 수는 870명에 달한다<sup>2-4)</sup>. 대한침구의학회의 대한침구의학회지와 관련된 논문은 총 5편으로 《대한침구의학회지》 논문의 통계적 오류에 관한 연구<sup>5)</sup>, 《대한침구의학회지》 개선에 대한 전략적 방향<sup>6)</sup>, 《대한침구의학회지》 논문에 응용된 통계방식에 관한 연구<sup>7)</sup>, 《대한침구의학회지》에 수재된 논문에 대한 분석고찰<sup>8)</sup>, 《대한침구의학회지》에 게재된 약침관련논문의 유형분석<sup>9)</sup>으로 파악된다. 1999년 이후 대한침구의학회지에 수재된 논문에 대한 분석고찰이 이루어진 바가 없으며 1984년 창호1권부터 현재까지 30년간의 변천사 및 학회지의 논문 유형분석은 또한 이뤄지지 않아 이를 10년 단위로 관찰함으로써 미래 침구의학회가 나아갈 방향설계에 도움이 되고자 관찰한 결과를 보고 하는 바이다.

## II. 본 론

### 1. 검색대상 및 검색방법

검색날짜는 2014년 1월 15일부터 1월 20일까지로 하였고 검색대상은 1984년 1권 1호부터 2013년 30권 5호까지였다. 대한침구의학회 검색서비스인 kamms(<http://www.kamms.org/>) 및 theacupuncture(<http://www.theacupuncture.or.kr/>)를 이용하였다. 검색서비스에서 제외된 논문은 포함되지 않았다.

### 2.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논문은 Excel 2007 for Windows 버전을 사용하여 10년 단위(1984~1993, 1994~2003, 2004~2013)로 나누어 논문의 수 및 분류를 해보았다. 분류방법으로는 총 논문을 근골격계 질환 및 부위, 침법, 구법, 혈위를 기반으로 한 논문, 문헌을 근거로 한 침 / 경혈 및 기타 실험 등을 통한 원리, 내과질환, 신경정신과, 부인 / 소아, 오관 / 피부과, 약침·수침 및 봉독관련 논문, 진단, 한약, 동향 / 연구 방법 / 평가 / 표준화 및 지침, 기타 미분류로 분류를 하여 대한침구의학회의 연구 論文史, 분류 수에 따른 변천, 방향 및 동향을 관찰해보았다.

### 3. 검색 및 분석결과

대한침구의학회 검색서비스를 통해 1984년부터 2013년까지 총 2,081편이 검색되었다.

논문을 10년 단위로 나누어 비교분석해 볼 때 1984~1993년까지는 168편, 1994~2003년까지는 853편, 2004~2013년까지는 1,060편의 논문이 게재되었다(Fig.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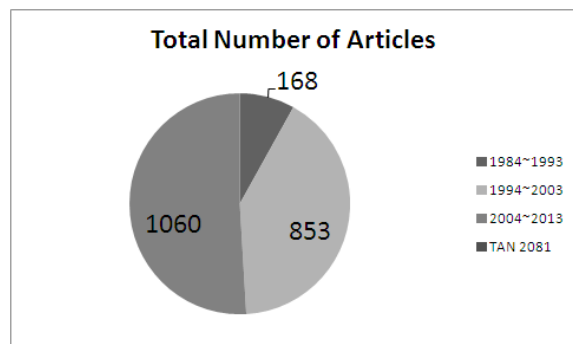


Fig. 1. Number of articles published from 1984~2013 classified in three decades

#### 1) 초창기 10년간의 논문 검색결과

1984년부터 1993년까지 10년간의 논문을 검색한 결과 168편의 논문이 검색되었다(Fig. 1). 검색된 168편의 논문을 살펴보면, 실험 논문 77편, 문헌논문 60편, 임상논문 27편, 증례 4편(사례 수 1례 2편, 2례, 3례)이었다(Fig.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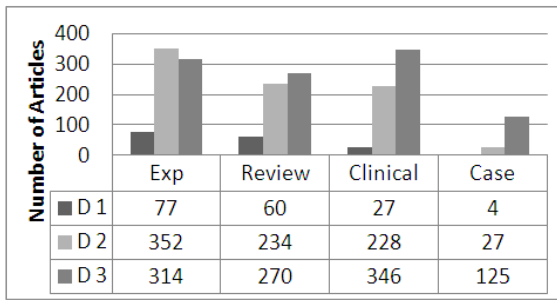


Fig. 2. Classification I

D1 : first ten years, 1984~1993.  
 D2 : second ten years, 1994~2003.  
 D3 : recent ten years, 2004~2013.  
 Exp : experiment articles.

(1) 형태별 논문 분류

초창기 10년간의 논문을 근골격계 질환 및 부위, 침법, 구법, 혈위를 기반으로 한 논문, 문헌을 근거로 한 침 / 경혈 및 기타 실험 등을 통한 원리, 내과질환, 신경정신과, 부인 / 소아, 오관 / 피부과, 약침 · 수침 및 봉독관련 논문, 진단, 한약, 동향 / 연구방법 / 평가 / 표준화 및 지침, 기타 미분류로 분류를 하여 그 논문의 수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근골격계 질환 및 부위와 관련된 논문 26편, 침법의 임상관찰, 치료, 효과 등 31편, 구법의 이론, 원리, 치료, 효과 등 14편, 특정 혈위를 이용한 치료 및 기타 24편, 문헌을 근거로 한 침 / 경혈 및 기타 실험 등을 통한 원리 규명 22편, 내과질환 4편, 신경정신과 3편, 부인소아 4편, 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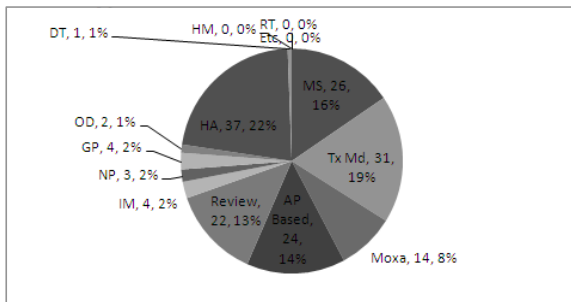


Fig. 3. Types of articles(TOA) in the first decade

Tx Md : treatment methods.  
 AP Based : specific acupuncture points based articles.  
 IM : internal medicine.  
 NP : neurology & psychiatry.  
 GP : gynecology & pediatric.  
 OD : otorhinolaryngology & dermatology.  
 HA : herbal acupuncture.  
 DT : diagnostic tools utilized articles.  
 HM : herbal medicine.  
 RT : recent tren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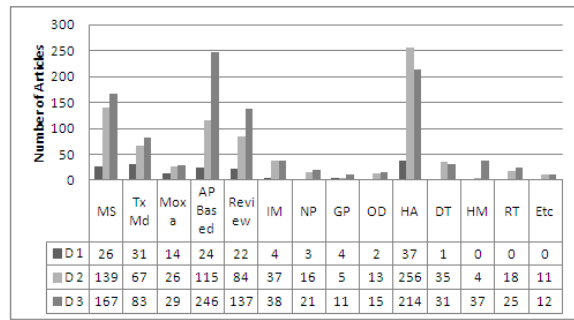


Fig. 4. Classification II

관 / 피부과 2편, 약침 · 수침 및 봉독관련 논문 37편, 진단법 및 기기를 통한 진단 1편, 한약 0편, 동향 / 연구방법 / 평가 / 표준화 및 지침 0편, 기타 미분류 0편으로 분류되었다 (Fig. 3, 4).

(2) 근골격계 질환의 부위와 관련된 논문 종류

초기 10년간의 근골격계 논문을 항목별로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다. 안면마비 2편, 치아편 2편, 경추부 3편, 어깨 부위 4편, 요추 11편, 척수 및 척추전반 2편, 발목 1편이 포함되었다(Fig.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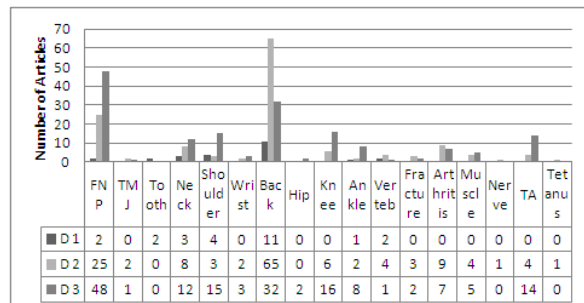


Fig. 5. Classification III

FN P : facial nerve palsy.  
 Vertebral : vertebral, spinal symptoms.

2) 중기 10년간의 논문 검색결과

1994년부터 2003년까지 10년간 수재된 논문을 검색한 결과 853편의 논문이 검색되었다(Fig. 1). 검색된 853편의 논문을 살펴보면, 실험논문 352편, 문헌논문 234편, 임상논문 228편, 증례 37편, 기타 독자편지 2편이었으며 증례의 경우 27편이 치험 1례를 포함하였고 나머지는 2례에서 38례에 대한 증례가 게재된 것으로 검색되었다(Fig. 2).

(1) 형태별 논문 분류

10년간의 논문을 근골격계 질환 및 부위, 침법, 구법, 혈

위를 기반으로 한 논문, 문헌을 근거로한 침 / 경혈 및 기타 실험 등을 통한 원리, 내과질환, 신경정신과, 부인 / 소아, 오관 / 피부과, 약침 · 수침 및 봉독관련 논문, 진단, 한약, 동향 / 연구방법 / 평가 / 표준화 및 지침, 기타 미분류로 분류를 하여 그 논문의 수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근골격계 질환 및 부위와 관련된 논문 140편, 침법의 임상관찰, 치료, 효과 등 67편, 구법의 이론, 원리, 치료, 효과 등 26편, 특정 혈위를 이용한 치료 및 기타 115편, 문헌을 근거로 한 침 / 경혈 및 기타 실험 등을 통한 원리 규명 84편, 내과질환 37편, 신경정신과 15편, 부인소아 5편, 오관 / 피부과 13편, 약침 · 수침 및 봉독관련 논문 256편, 진단법 및 기기를 통한 진단 35편, 한약 4편, 동향 / 연구방법 / 평가 / 표준화 및 지침 18편, 기타 미분류 11편으로 분류되었다(Fig. 4,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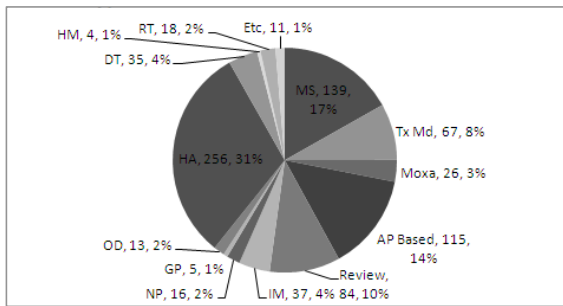


Fig. 6. TOA in the 2nd decade

(2) 근골격계 질환의 부위와 관련된 논문 종류

중기 10년간의 근골격계 논문을 항목별로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다. 안면마비 25편, 치아편 0편, 경추부(VDT 포함) 8편, 어깨부위 3편, 요추 65편, 척수 및 척추전반 4편, 발목 2편, 기타 초기에 없었으나 중기에 새로 포함된 항목으로는 무릎부위 6편, 손목부위 2편, 골절 및 골화증 3편, 관절염 9편, 근막 및 근육관련 논문 4편, 말초신경증 1편, 턱 2편, 파상풍 1편, TA 4편이 포함되었다(Fig. 5).

3) 최근 10년간의 논문 검색결과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간 수재된 논문을 검색한 결과 1,060편의 논문이 검색되었다(Fig. 1). 검색된 1,060편의 논문을 살펴보면, 실험논문 314편, 문헌논문 270편, 임상 논문 346편, 증례 125편, 기타 5편이었으며 증례의 경우 1례가 56편이었고 2례에서 29례까지 발표된 바 있었다(Fig. 2).

(1) 형태별 논문 분류

10년간의 논문을 근골격계 질환 및 부위, 침법, 구법, 혈위를 기반으로 한 논문, 문헌을 근거로 한 침 / 경혈 및 기

타 실험 등을 통한 원리, 내과질환, 신경정신과, 부인 / 소아, 오관 / 피부과, 약침 · 수침 및 봉독관련 논문, 진단, 한약, 동향 / 연구방법 / 평가 / 표준화 및 지침, 기타 미분류로 분류를 하여 그 논문의 수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근골격계 질환 및 부위와 관련된 논문 167편, 침법의 임상관찰, 치료, 효과 등 83편, 구법의 이론, 원리, 치료, 효과 등 29편, 특정 혈위를 이용한 치료 및 기타 246편, 문헌을 근거로 한 침 / 경혈 및 기타 실험 등을 통한 원리 규명 137편, 내과질환 38편, 신경정신과 21편, 부인소아 11편, 오관 / 피부과 15편, 약침 · 수침 및 봉독관련 논문 214편, 진단법 및 기기를 통한 진단 31편, 한약 37편, 동향 / 연구방법 / 평가 / 표준화 및 지침 25편, 기타 미분류 12편으로 분류되었다(Fig. 4,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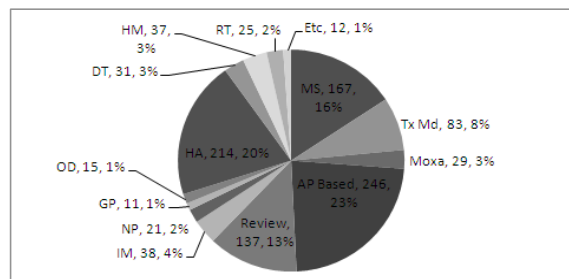


Fig. 7. TOA in the recent decade

(2) 근골격계 질환의 부위와 관련된 논문 종류

최신 10년간의 근골격계 논문을 항목별로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다. 안면마비 48편, 치아편 0편, 경추부 12편, 어깨부위 15편, 요추 32편, 척수 및 척추전반 1편, 발목 8편, 무릎부위 16편, 손목(손가락 포함) 3편, 골절 및 골화증 2편, 관절염 7편, 근막 및 근육관련 논문 5편, 말초신경증 0편, 턱 1편, 파상풍 0편, TA 14편과 이전에 없었던 항목으로 고관절부위논문이 2편 포함되었다(Fig. 5).

4) 증례논문편

증례편만 살펴보면 초창기에 비해 논문의 수가 초기 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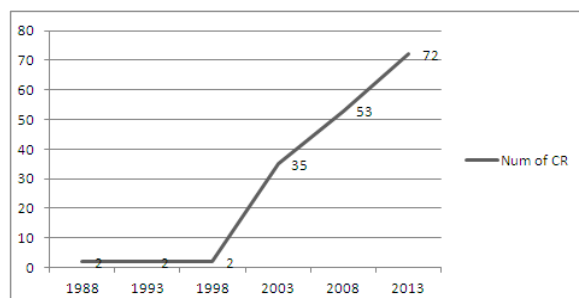


Fig. 8. Number of case reports

간 총 4편에서 최근 2013년에는 33편이 수재되었고 5년별로 추이표를 살펴보면 최근까지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Fig. 8).

### III. 고찰

1984년 침구의학회의 논문집 1호가 연간 1회 발간되었다. 창간호에 수록된 11편의 논문을 통해 학회지사를 살펴보면 백서를 이용한 실험 7편과 문헌적 고찰 4편으로 저자의 수는 2편을 제외한 논문에서 2명의 저자, 참고문헌은 19~70개로 편차가 있었고 실험 논문에는 서양문화권의 참고문헌이 4~14편으로 참고 되었으나 이는 한의학적 내용과 관련된 문헌이 아닌 실험 및 생리·병리학적 이론의 근거를 위한 참고문헌이었다<sup>3)</sup>. 11편 중 종설논문에는 영문초록이 포함되지 않았으나 실험 논문 7편에는 영문초록이 실렸고 제1저자의 소속기관이 11편 중 실험논문 3편 및 종설논문 1편에서 한의과대학이 아닌 한의원 규모였으며 한의과대학과 연계되어 발표되었다. 초창기 창간호에 수록된 11편의 논문을 통해 학회지사를 살펴보면 제1저자의 소속기관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에 경희대학교 한의학대학 2편,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2편, 경희의료원 침구의학과 1편, 대전대학교 한의학과에서 1편을 게재하여 경희대학교에서 가장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1985년에는 증례 논문 1편이 처음으로 게재되었고 증례 사례 수는 2례였다<sup>10)</sup>. 소속기관으로는 동국대학교 침구의학과교실에서 2편,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1편, 침구의학과교실 1편, 한방병원 제1침구의학과 1편,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부교실, 한의원 규모 1편(경희대학교와 원광대학교 공동으로 편차)으로 한의과대학 침구의학과 소속의 명시는 1985년부터 시행되었다. 또한 1985년 이전에 없었던 국외(중·일본권 제외)에서 게재된 침 및 전침과 관련된 논문 16편이 참고문헌으로 인용되었다. 1986년에는 종설 6편, 실험 3편, 임상논문 1편이 게재되었고 86년 이전까지는 문헌의 고찰을 통한 이론적 문헌 고찰이 이뤄졌다. 또한 1986년에는 이전에 없었던 질환의 임상적 진단에 대한 고찰 논문 1편<sup>11)</sup>과 x-ray<sup>12)</sup>를 중심으로 한 임상논문이 게재되어 이것으로서 임상적인 관찰의 시작 시점으로 사료된다. 1993년 이전의 논문의 제1저자의 소속기관을 살펴보면 경희대학교 침구의학과교실에서 32편(89년, 91년 활발한 연구), 기타 경희대학교 소속기관에서 21편, 동국대학교 침구의학과교실 16편, 기타 동국대학교 소속기관에서 5편, 원광대학교 침구의학과교실 10편, 기타 원광대학교 소속기관에서 12편,

대전대학교 침구의학과 및 한의학과 15편, 대구한의대학교 침구의학과 및 한의학과 4편, 동서한방병원 5편, 상지대학교 3편, 경산대학교 2편, 동의대학교 1편, 동서한방병원 5편과 로컬한의회장 14편이 검색되어 최다수의 논문을 수재한 경희대학교와 동국대학교에서 침구의학 연구의 초석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초기 10년간의 논문에서 저자 수는 제1저자 1인에서 제5저자가 최다 인수였으며, 1저자를 기준으로 저자의 기여를 게재 편수로 보았을 때에 1인<sup>13-17)</sup>이 5년간 매년 논문을 게재하여 연구에 힘쓴 것으로 나타났고, 그 외 1인이 4편, 7인이 3편을 게재하며 침구의학회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또한 1993년 이전 영문 논문은 2회 게재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참고문헌의 경우 최저 6편에서 최다 109편의 논문을 참고문헌으로 인용한 것으로 나타났다<sup>8)</sup>. 80년대 중후반에는 일본 한의학 관련 논문 및 저서를 많이 인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90년대 초반에는 거의 볼 수가 없으며 반면 80년대 후반 및 90년대 초반의 논문들을 살펴보면 한·중·일을 제외한 서양문화권의 침치료 및 전침치료와 관련된 논문이 적게는 1편, 많게는 19편이 인용된 것으로 연구의 근거제시로 서양문화권에서 연구된 침·전침의 연구결과가 근거제시에 비중 높게 인식되어 가게 된 것으로 보인다<sup>9)</sup>.

증례는 초창기 10년간의 증례 논문의 수는 총 4편이었고 그 후에도 2000년대 실험논문 및 문헌논문에 비해 그 수가 저조하며 증가 추이는 보이지 않았으나 2001년부터 2년 간 20편이 게재됨으로써 90년대까지 저조했던 증례의 수가 2000년대 초에 이르러 매년 최소 10편의 논문이 게재되었고 2004년과 2009년 각각 35편이 발표되며 활발하게 진행되어 실질적인 환자의 사례를 발표함으로써 임상진료에 직접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Fig. 8).

30년간의 논문을 항목별로 비교하여 변천사를 관찰해 보았을 때에 근골격계 질환과 관련한 논문의 수는 중기부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고 침법과 관련된 논문은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인다. 애주구와 관련된 논문은 중기 및 최근에도 비슷한 수준의 연구가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혈위를 기반으로 연구된 논문의 개수는 초기 24편에서 중기에 115편, 최근에는 246편으로 현저한 증가추세를 보이며 문헌논문 및 원리규명 및 이론적 근거를 논하는 논문 역시 초기 22편에서 최근 137편까지 달하며 활발한 연구가 진행됨을 알 수 있다. 각 분과로 항목을 나눠 살펴봤을 때에 근골격계, 내과, 신경정신과, 부인과 / 소아과, 오관 및 피부과 영역에서도 최근 증가된 논문의 편수를 살펴 볼 수 있으며 수침·약침 및 봉독침의 연구는 중기부터 급증하여 꾸준한 연구가 진행되며 《대한침구의학회지》에 가장 많이 실리는 항목으로 나타났다. 진단기기를 이용한 논문



도 초기 1편에서 중기 때 35편, 최근 31편으로 논문 편수는 줄었지만 꾸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한약 관련 논문 역시 최근 10년간 37편으로 늘어났고 초창기에 볼 수 없었던 연구 동향 및 표준화를 위한 논문이 최근 25편으로 방향을 제시해주며 기준을 세울 수 있는 계기 마련도 최근 진행 증임을 알 수 있다(Fig. 7).

이번 연구에서 분석의 한계로는 검색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은 현존하는 논문에 따른 변수 및 논문의 수에 대한 정보 미비가 고찰에 제한을 줄 수 있었다. 논문의 계통적 분류에 있어서 부위별 질환, 특정 혈위를 사용한 연구 및 치료법(침, 약침, 뜸) 및 분과별로 분류를 하는 데에 포함가능 항목이 1개 이상 시 중복 포함을 하지 않는 이상 분류의 한계를 피할 수 없어 개별적인 계통적 분류가 필요할 것으로 된다. 즉, 부위별 질환에 따른 분류, 특정 혈위를 사용한 연구에 따른 분류, 약침관련 논문 내에서의 부위, 종류, 질환별 및 사용 혈위별로의 분류, 치료법 내에서의 부위, 종류, 질환별 및 사용 혈위별로의 분류, 부위 및 질환별 치료법과 관련된 분류 등 중복 포함을 가능하게 한 개별적인 분류가 정확한 분석의 오류를 낮출 것으로 판단된다.

끝으로 1997년 표준화 작업과 관련된 논문이 게재되면서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기준점이 된 것으로 보인다<sup>20)</sup>. 그 이후 다양한 연구동향 및 기준, 표준화, 지침 및 질적 평가 및 분석을 하는 개발 연구가 이뤄지면서 기준에 맞춰 연구를 하는 한계를 뛰어 넘어 기준을 세우는 지도자의 역할을 함으로써 대한침구의학회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도 표준화 및 지침과 관련된 더 많은 연구가 이를 뒷받침 하여야 할 것이다<sup>21-23)</sup>.

#### IV. 결 론

1984년 창간된 1호지부터 2013년 30권 5호까지 30년간 <<대한침구의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을 10년 단위로 나누어 비교 분석 고찰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총 2,081편의 논문 중 1984~1993년까지는 168편으로 8 %를 차지하고, 1994~2003년까지는 853편으로 41 %를 차지했으며 2004~2013년까지는 1,060편으로 51 %를 차지하였다.
2. 논문의 유형은 2,081편 중 실험논문 743편, 문헌논문 564편, 임상논문 601편, 증례 156편으로 각각 36 %, 27 %, 29 %, 8 %를 차지하였다.
3. 총 실험논문 중 초기 10년간 77편의 실험논문으로

- 10 %, 중기 10년간 352편으로 42 %, 최근 10년간 314편으로 48 %를 차지하였다.
4. 총 문헌논문 중 초기 10년간 60편의 문헌논문으로 11 %, 중기 10년간 234편으로 41 %, 최근 10년간 270편으로 48 %를 차지하였다.
5. 총 임상논문 중 초기 10년간 27편의 임상논문으로 4 %, 중기 10년간 228편으로 38 %, 최근 10년간 346편으로 58 %를 차지하였다.
6. 총 증례논문 중 초기 10년간 4편의 증례논문으로 3 %, 중기 10년간 27편으로 17 %, 최근 10년간 125편으로 80 %를 차지하였다.
7. 논문을 계통별로 비교분석해 볼 때 근골격계 질환 및 부위 332편으로 16 %, 침법 181편으로 9 %, 구법 69편으로 3 %, 혈위를 기반으로 한 논문 385편으로 19 %, 문헌을 근거로 한 침 / 경혈 및 기타 실험 등을 통한 원리논문 243편으로 12 %, 내과질환 79편으로 4 %, 신경정신과 40편으로 2 %, 부인 / 소아 20편으로 1 %, 오관 / 피부과 30편으로 1 %, 약침 · 수침 및 봉독관련 논문 507편으로 25 %, 진단 67편으로 3 %, 한약 41편으로 2 %, 동향 / 연구방법 / 평가 / 표준화 및 지침 43편으로 2 %, 기타 미분류 23편으로 1 %를 차지하였다.
8. 계통별로 비교분석해 볼 때 초기 10년간 근골격계 질환 및 부위 논문의 수는 26편으로 16 %, 침법 31편으로 19 %, 구법 14편으로 8 %, 혈위를 기반으로 한 논문 24편으로 14 %, 문헌을 근거로 한 침 / 경혈 및 기타 실험 등을 통한 원리논문 22편으로 13 %, 내과질환 4편으로 2 %, 신경정신과 3편으로 2 %, 부인 / 소아 4편으로 2 %, 오관 / 피부과 2편으로 1 %, 약침 · 수침 및 봉독관련 논문 37편으로 22 %, 진단 1편으로 1 %, 한약 0편으로 0 %, 동향 / 연구방법 / 평가 / 표준화 및 지침 0편으로 0 %, 기타 미분류 0편으로 0 %를 차지하였다.
9. 중기 10년간 근골격계 질환 및 부위 논문의 수는 139편으로 17 %, 침법 67편으로 8 %, 구법 14편으로 3 %, 혈위를 기반으로 한 논문 115편으로 14 %, 문헌을 근거로 한 침 / 경혈 및 기타 실험 등을 통한 원리논문 84편으로 10 %, 내과질환 37편으로 4 %, 신경정신과 16편으로 2 %, 부인 / 소아 5편으로 1 %, 오관 / 피부과 13편으로 2 %, 약침 · 수침 및 봉독관련 논문 256편으로 31 %, 진단 35편으로 4 %, 한약 4편으로 1 %, 동향 / 연구방법 / 평가 / 표준화 및 지침 18편으로 20 %, 기타 미분류 11편으로 1 %를 차지하였다.

10. 최근 10년간 근골격계 질환 및 부위 논문의 수는 167편으로 16 %, 침법 83편으로 8 %, 구법 29편으로 3 %, 혈위를 기반으로 한 논문 246편으로 23 %, 문헌을 근거로 한 침 / 경혈 및 기타 실험 등을 통한 원리논문 137편으로 13 %, 내과질환 38편으로 4 %, 신경정신과 21편으로 2 %, 부인 / 소아 11편으로 1 %, 오관 / 피부과 15편으로 1 %, 약침 · 수침 및 봉독관련 논문 214편으로 20 %, 진단 31편으로 3 %, 한약 37편으로 3 %, 동향 / 연구방법 / 평가 / 표준화 및 지침 25편으로 2 %, 기타 미분류 12편으로 1 %를 차지하였다.
11. 근골격계 부위 및 질환별로 분석시 요추부위 관련 논문이 108편으로 33 %로 최다 편수를 기록하였고, 안면마비는 75편으로 23 %를 차지하였으며 논문 편수가 30년 사이에 급격하게 증가한 부위는 안면마비 편으로 초기 2편에서 최근 48편, 경추통증은 3편에서 12편으로, 어깨통증은 4편에서 15편으로 증가하였고, 초기 논문편수가 없었던 질환에서 최근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부위 및 질환은 슬부와 교통사고로 인한 통증으로 각각 22편과 18편으로 7 %, 5 %를 차지하였으나 반면 30년 사이에 편수가 감소된 부위는 치통, 척추질환, 신경계관련 논문이 차지하였다.

## V. References

1. Korean Inter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Theory and Actuality of Writing. Seoul : Korean International University Press. 2011 : 177.
2. Journal of Korean Acupuncture & Moxibustion. 2013. Available from : URL : <http://www.theacupuncture.or.kr/>
3. The Society of Korean Medicine. 2013. Available from : URL : <http://www.skoms.org/>
4. Korean Acupuncture & Moxibustion Society. 2013. Available from : URL : <http://www.kamms.org/>
5. Lee SD. An Assessment of Statistical Validity of Articles Published in the Journal of Korean Acupuncture & Moxibustion Society - from 1984 to 2002-. The J of Korean Acupuncture & Moxibustion Society. 2004 ; 21(1) : 176-88.
6. Song HS. Strategic Directions for the Improvement of Journal of Korean Acupuncture and Moxibustion Society. The J of Korean Acupuncture & Moxibustion Society. 2010 ; 27(4) : 147-78.
7. Lee SD. Analysis of various statistical techniques used in the articles published during last 19 years in The Journal of Korean Acupuncture & Moxibustion Society. The J of Korean Acupuncture & Moxibustion Society. 2003 ; 20(1) : 144-58.
8. Soo JC, Nam SS, Lee JD et al. Analytic Study on Treatises of the Journal of Korean Acupuncture & Moxibustion Society. The J of Korean Acupuncture & Moxibustion Society. 1999 ; 16(1) : 125-46.
9. Baik SI, Ahn JC, Kim YJ, Kim HS, Kwon KR. Type Analysis of Pharmacopuncture Papers Published in the Journal of Korean Acupuncture and Moxibustion. The J of Korean Acupuncture & Moxibustion Society. 2006 ; 23(6) : 19-27.
10. Yum JI, Kim JH, Ko HG, Kim CH. Two Case Reports on Chronic Senile Comedones. The J of Korean Acupuncture & Moxibustion Society. 1985 ; 2(1) : 89-92.
11. Choi KD. Clinical Diagnosis on Sciatica. The J of Korean Acupuncture & Moxibustion Society. 1986 ; 3(1) : 117-33.
12. Chu JJ, Lim DS, Ahn BC.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Acupuncture Points, Choe's Four flower point and GB20 -Through X-ray findings. The J of Korean Acupuncture & Moxibustion Society. 1986 ; 3(1) : 109-16.
13. Lee JM, Kim KS. Effects of Moxibustion on the Blood Pressure, Plasma Renin Activity and Catecholamine Concentration in the Two Kidney One Clip Goldblatt Hypertensive Rats. The J of Korean Acupuncture & Moxibustion Society. 1987 ; 4(1) : 17-38.
14. Lee JM. The Literature Review on Acupuncture Treatment of Toothache. The J of Korean Acupuncture & Moxibustion Society. 1988 ; 5(1) : 85-8.
15. Lee JM. The Literature Review on Acupuncture Treatment Points on Diarrhea. The J of Korean Acupuncture & Moxibustion Society. 1989 ; 6(1) : 15-20.

16. Lee JM. Report on the clinical review on the treatment of Lumbar Pain. *The J of Korean Acupuncture & Moxibustion Society*. 1990 ; 7(1) : 215–219.
17. Lee JM. The Literature Review of the Acupuncture Treatment on Epistaxis. *The J of Korean Acupuncture & Moxibustion Society*. 1991 ; 8(1) : 389–394.
18. Yun SS, Lee BR, Seong NG. Effect of Aquacupuncture of *Artemisia capillaris* Herba Extract on the Rat Hepatocyte damaged by Carbon tetrachloride. *The J of Korean Acupuncture & Moxibustion Society*. 1991 ; 8(1) : 307–33.
19. Lee HS, Cho KW, Lim JK. Effect of Acupuncture on the Plasma  $\beta$ -endorphin Concentration in Healthy Person. *The J of Korean Acupuncture & Moxibustion Society*. 1986 ; 3(1) : 1–9.
20. Cheon YS, Kim CH, Kang SK, Koh HK, Park YB, Kim YS. Reviews of Research on the Standardization of AeYung. *The J of Korean Acupuncture & Moxibustion Society*. 1997 ; 14(1) : 55–69.
21. Park JE, Kang KW, Choi SM. Assessing Methodological Quality of Acupuncture Clinical Trials of Korea. *The J of Korean Acupuncture & Moxibustion Society*. 2007 ; 24(1) : 127–35.
22. Yi SH, Kim EJ, Shin KH et al. Study on Developing Assessment Guideline for Safety and Performance of Electric Cupping Apparatus. *The J of Korean Acupuncture & Moxibustion Society*. 2009 ; 26(6) : 101–10.
23. Lee HS, Park JB, Seo CH, Park HJ, Lee HJ. Standards for Reporting Interventions in Controlled Trials of Acupuncture: The STRICTA Recommendations. *The J of Korean Acupuncture & Moxibustion Society*. 2002 ; 19(6) : 134–54.